

# 새 국면 맞은 제2공항 타당성 재조사 용역

### 어제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중간보고회서 국토부-반대대책위, 재조사 용역 검토위 구성 등 합의

주민 반발로 무산될 것으로 예상됐던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용역 중간보고회가 막판 진통 끝에 개최되는 등 제2공항 문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모양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제주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집행위원회(이하 성산읍반대대책위)는 타당성 재조사 용역을 검증·모니터링 할 검토위원회를 이날 중 구성하기

로 합의했다. 다만 성산읍 반대대책위 측은 검토위원회 구성이 늦어진 만큼 용역기간을 연장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중간보고회가 11일 오전 10시30분 제주도청 2별관 자유실에서 제주도와 국토부, 아주대 산학협력단, 제2공항 찬반주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됐다.

앞서 성산읍반대대책위는 타당성 재조사 용역을 검증·모니터링할 검토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용역이 진행됐다고 주장하며 중간보고회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국토부와 성산읍반대대책위는 중간보고회에 앞서 10일 오후 1시부터 8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를 갖고 검토위원회의 구성 일정을 협의하고 타당성 재조사 쟁점사항만 공개하는 수준의 제1차 중간보고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양측은 특히 오는 16일까지 검토위원회 참여위원을 각각 7명씩 추천해 선정한 뒤 17일 브리핑을 갖고 검토위

원회구성방향·추진일정 등을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18-19일 양일 중 검토위 1차 회의를 가진 뒤 총합적인 성격의 2차 중간보고회를 갖기로 했다. 다만 양측은 용역 기간 연장부분에 대해서 합의하지 못해 1차 중간보고회가 끝난 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성산읍 반대대책위 측은 검토위원회의 활동기간에 맞춰 용역기간을 2-3개월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한 반면 국토부는 1개월 연장까지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중간보고회가 11일 제주도청에서 제주도와 국토부, 제2공항 찬반주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됐다. 강희만기자

한편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용역진은 이날 열린 1차 보고회에서 지난 2017년 진행된 사전타당성 용역에서 논란이 됐던 ▷주민의견 수렴과정 ▷인프라 확충 대안 비교검토 부족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범위 초과 ▷1·2·3단계 후보지 입지평가 항목의 적정성 ▷평가기준치 적정성 부분을 검토하고, 이전 사전타당성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던 ▷지하동굴 영향분석 ▷군공항 이용우려 ▷에타의 오름 절취 가능성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한영길 신산리장(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공동대표)은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에 지적·지반검사를 포함해 줄 것과 용역기간 연장을 요구했다. 반면 제2공항 건설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힌 김영주씨는 균형발전 측면에서 제2공항 필요성을 들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 전기차 충전기 사고에도 커넥터 일부만 교체

### 제주도 3~10일 동일제품 26기 임시 교체 도내 91기 중 나머지 65기는 그대로 사용 “도, 선제 대응 차원... 환경부 대책 마련중”

대구와 제주에서 잇따라 전기차 충전 중 급속충전기 커넥터가 파손되는 사고(본보 8월30일자 5면 보도)가 발생했지만 도내 비치된 동일제품 91기 중 제주도 소유 커넥터 26기만 교체되는 데 그쳤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청 전기차 급속충전기 커넥터 파손사고'에 대한 사후조치로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과 불편해소를 최우선으로 고려, 사고 커넥터와 동일한 제품 26기를 교체했다고 11일 밝혔다. 제주도와 제주에너지공사는 제주도 소유 급속충전기 사고제품 DC콤보 커

넥터 26기를 3~10일 사용빈도가 높은 곳부터 단계적으로 사고 원인 규명시까지 전량 임시 교체했다. 문제는 사고가 난 커넥터와 같은 제품 중 제주도 소유의 커넥터를 제외한 나머지 커넥터 65기가 교체없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도내 구축된 급속충전기 370기 중 91기가 사고 커넥터와 동일한 제품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중 환경부 소유 20기, 한국전력공사 소유 44개(개방형 12기·공동주택형 32기), 민간충전사업자 소유 1기는 커넥터를 교체하지 않았다. 또한 관광객이나 도민이 전기차충

전소 안내 지도에서 커넥터가 교체된 급속충전기와 여전히 사고 커넥터와 같은 제품을 쓰고 있는 급속충전기를 구분할 수 없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환경부, 한국전력공사 및 도내 전기차 충전기 민간충전 사업자에 공문을 보내 사고 제품과 동일한 기종에 대해 안전점검 등을 당부했다. 제주도는 선제적으로 해당 제품을 교체했지만 다른 기관에게 이를 강요할 수는 없는 실정”이라며 “커넥터 파손사고와 관련해 환경부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와 제주에너지공사는 급속충전기 커넥터 파손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자문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가에 용역도 의뢰한 상태”라고 밝혔다. 채해원기자

## 평화로서 트럭 충돌사고

### 트럭 운전자 2명 중경상

11일 오후 2시53분쯤 제주시 예월을 원동교차로 인근 평화로에서 25t 덤프 트럭과 4.5t 트럭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 이 사고로 4.5t트럭 운전자 강모(56) 씨가 팔과 다리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고, 덤프트럭 운전자 정모(56)씨도 경상을 입어 119에 의해 제주 시내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송은범기자

## 여성안심 무인택배 서비스 '인기'

### 무인기에 택배 보관 시 시민이 직접 찾는 방식 도내 4곳 운영중... 이용객 늘면서 확대 계획도

제주도 내 여성 및 지역주민 안전을 위한 '여성 안심 무인택배 보관함 서비스'가 인기를 끌면서 이용객이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여성 안심 무인택배 보관함 서비스'는 택배를 가장한 여성 대상 범죄 발생을 예방하고 맞벌이 부부 등 자택에서 택배 수령이 어려운 도민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마련됐다. 이용방법은 택배 요청 시 무인택배 보관함 주소를 기재하면 배달사가 무인택배함에 물품을 넣은 뒤 물품 수령인에게 문자로 보관함 번호와 비밀번호를 전송한다. 이후 수령인이 원하는 시간에 택배함에 와서 주문한 물품을 찾아가면 된다. 특히 무인택배함은 연중무휴 24시간 무료로 운영하고 있어 택배를 받을 경우 자신의 집 주소를 알리지 않을 수 있고, 또 분실 우려도 적어 이용객이 점차 늘고 있다. 11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여성 안심 무인택배 보관함 서비스'는 제주시 외도동 주민센터 후문과 제주중앙지하상가 등 제주시 2곳과 서귀포시 동홍동주민센터와 천지동경로당 등 서귀포시 2곳 등 총 4개



서귀포시 동홍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여성안심 무인택배 보관함. 조흥준기자

소에서 운영 중이다. 이용 실적은 보면 2018년 8월까지 1만800건으로, 2017년 1만3308건, 2016년 9283건, 2015년 8953건 등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제주도 관계자는 “무인택배 보관함을 이용하면 여성들의 경우 집에 낯선 사람이 집에 방문하는 등의 불안감을 줄일 수 있고, 부재시 주문한 물건을 안심하고 보관해 줬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찾아가 수 있어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수요조사 등을 통해 내년에서 추가 설치하는 등 무인택배 보관함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흥준기자 chi@ihalla.com

## 2018 제주수학축전 15~16일 개최

### '하간다가 문뜩 수학' 주제... 제주ICC서

'2018 제주수학축전'이 오는 15일과 16일 양일간 '하간다가 문뜩 수학이우다(모든 곳에 수학이 있어오)'라는 주제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와 주변 올빛길에서 펼쳐진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교육청이 주최하고, 도교육청과 제주도초등수학교육연구회, 제주도초등수학교육연구회가 공동 주관하는 '제주수학축전'은 수학체험전, 수학경진대회, 체험수학교실, 매쓰투어(Math Tour), 매쓰이벤트(Math Event), 수학탐구등아리, 수학학생동아리 발표 등 총 7개 영역으로 마련된다. 올해로 19회째인 수학축전에는 전국 10개 시·도 교육청 소속 학교와 일본, 베트남, 우즈베키스탄의 교사와 학생들이 참가한다. 전도에 있는 초·중·고 수학동아리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102개 체험 부스가 운영되며 700여명의 학생 도우미가 참여한다. 교육청 관계자는 “수학이 일반 대중

들에게 친근하고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수학에 대한 흥미와 수학 학습동기를 부여, 수학적 사고력 및 창의력 신장에 기여하고, 제주교육·관광·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축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드론버스는 드론교육+항공촬영+항공방재+드론판매

# DRONE BUS

국가 자격증반 모집 (필기시험 면제)

농약살포 대행 해드립니다

064-746-7277 (24h 상담)

# 제주도 태양광은 제주기업에게

제주도 태양광 최다 설치 실적의 제주 토종 기업

우수제품지정증서

보타리에너지(주) BOTARI ENERGY Co., Ltd.

신재생에너지사업 최8연달달매 지정서

우수 조달 성능 인증제품 공급업체

에너지공단 A/S 전담기업

2018 스타기업 선정

상업용 태양광발전소    주택·건물용 태양광    독립형·LED용 태양광

사원 모집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및 A/S 요원 (전기, CAD 자격증 소지자 우대)

고객 상담 및 A/S지원센터    080-799-9100    064-799-9100